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ANNUAL REPORT 2008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보고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0-10 조양빌딩 본관 1301호
TEL. 02) 2261-2291~3 FAX. 02) 2261-2294 www.lif.or.kr

출연사 (회사 설립순 / 2008. 12. 31. 기준)

대한생명·알리안츠생명·삼성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
우리아비바생명·미래에셋생명·금호생명·동부생명·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신한생명·라이나생명·ING생명·AIG생명

재단연혁

Foundation **History**

2007년

- 4월 생명보험협회, 업계 공동 사회공헌계획 공표
- 10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립추진
- 12월 보건복지부 설립허가(허가 제152호)

2008년

- 1월 재산출연 및 설립등기
- 2월 창립기념식 및 현판식/제1차 정기이사회
- 5월 제1차 자살예방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6월 제1차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7월 제1차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8월 제1차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9월 자살예방 지원사업 지원증서 전달식
재단 홈페이지 공개
- 10월 재단 CI선포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지원증서 전달식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지원증서 전달식
- 11월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지원증서 전달식
- 12월 국방부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지원
소방방재청과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협약 체결



Contents

인사말	004
재단설립	006
언론에서 바라본 2008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009
주요사업	013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014
-자살예방 지원사업	018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021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025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028
그림으로 본 2008 사업현황	029
비전	030
조직도	031

Chairman's Greetings

인사말

‘생명존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뜻을 잘 인지하고 있는 우리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명존중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2007년 12월 27일 출범 이후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일 년 동안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목적사업은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에 걸친 ‘생애보장’ 정신에 입각하여 생애주기별로 적합하게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일 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별로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적절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엄정한 선정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초창기에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첫째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수행, 정부·의료·복지·학계 등 해당분야의 관계자들로부터 재단의 공익성·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 재단은 출연사들의 지원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사업을 펼쳤습니다. 첫째,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총 인원 1만 2,215명을 대상으로 하는 36개 사업(연구)을 선정하여 19억 1,99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민간재단이며 지원규모도 큰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둘째,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의 사회적 관심을 높여 생명존중사상을 전파하고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총 인원 8만 8,461명을 대상으로 하는 15개의 사업(연구)을 선정하여 총 10억 2,317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을 목적사업으로 가진 최초의 민간재단으로 연예인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자살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으로 자살예방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 늘어나는 치매노인과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총 인원 2만 1,582명을 대상으로 하는 44개의 사업(연구)에 8억 5,890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사각지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적합한 사업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회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에는 총 인원 4만 9,684명을 대상으로 하는 14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4억 6,969만 6천 원을 지원하여 관련 사업 분야 각계각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철한 사명감이나 생명존중정신을 발현하여 국가와 공동체 및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사회적 의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생명존중을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의식을 확산시키는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입니다. 의인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의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생명보험업을 대표하는 전략적 상찬사업을 개발·시행할 예정입니다. 2008년에는 소방방재청과 2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출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단은 많은 단체와 개인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합니다. 2009년에도 생명보험의 ‘생애보장’ 정신을 구현하고 생명사랑 가치실현의 모델을 구축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재단과 사업대상자 간, 재단과 정부 간 사회적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공헌 사업의 체계화와 전략화에 힘쓰고, 공모사업과 더불어 파트너단체와 제휴 및 연계를 통한 직접 추진사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이 보다 체계화·전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재단의 사업이 정말 어두운 곳,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어려운 분들에게 삶의 위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처럼 묵묵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날까지 두박두박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재단이 가는 길에는 역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언제나 동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재단의 주요사업들의 수행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재원을 출연하여 주신 생명보험회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2월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이시형

● Foundation **Founding** 재단설립



재단 헌판식 (2008. 2. 29)

■ 재단설립의 사회적 배경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적 공동체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른바 정보화 혁명이 가져온 엄청난 변화는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가 모든 인간적 가치관에 우선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비인간화, 생명 경시 풍조, 환경오염, 세대 갈등,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생명 경시, 노인문제, 소외 문제는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개입 없이는 해소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상당수는 관련약품 부족, 사회적 편견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54.5%가 월평균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고, 11%가 신용불량상태에 있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역시 그 원인이 사회적 측면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예방책 또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장치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에게 발병되기 쉬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열악하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아 개인과 가족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정부·민간단체·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치매노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빚어질 사회적 위기와 생명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미 탄생한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역시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증가와 산모의 영양상태, 감염 및 약물남용 등으로 해마다 미숙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숙아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련 치료 시설 및 의료재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공동체 및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살신성인의 마음과 용기를 발휘한 의인을 사회적 차원에서 발굴하고 격려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의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은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의 정신과 공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최근 사회로부터 얻은 부를 다시 사회에 되돌려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회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진 민간단체는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경쟁 상대인 기업들이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취지로 자율협약을 체결해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내외적으로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제3의 사회공헌 모델'로 혁신적 사례로 꼽힌다"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평가하고 있다. 언론 역시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헌활동은 업계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특정 회사가 아닌 생명보험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라고 보도하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생명보험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생명보험업계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고유의 생명존중 사상은 약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 사고와 인간의 생명을 물론 다른 자연물까지 보호하려는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 생명존중 사상을 계승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활동은 현대 사회의 인간소외, 생명 경시 풍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재단설립 과정

생명보험업계는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1992년부터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전체 생명보험사가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공동 공익사업이 대표적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전국 90개 아동복지시설을 후원해 화장실 개조, 차량구입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우청소년과 시설생활 아동의 학자금과 사회정착금 보조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장학보험'을 개발해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이 TV를 볼 수 있도록 TV자막수신기를 기증한 바 있다. 2000년부터는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이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한 이동목욕차를 기증하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생명보험업계는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해 그동안 꾸준한 협의를 해왔으며,

- ① 창립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시형 재단 이사장
- ②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사회공헌위원회 양승규 위원장
- ③ 창립 기념 축하 참석자들



● Press Reports for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in 2008**

언론에서 바라본 2008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08년 2월 29일 재단 창립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재단에서 펼친 주요사업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재단의 2008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출범

생보사회공헌재단 본격활동 착수

첫사업으로 자살예방 활동지원

생명보험사들이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첫 사업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고 28일 밝혔다.

사회공헌재단은 ▲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발하는 생명사랑 연구사업 ▲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인식확산 사업 ▲ 자살 예방활동과 관련된 생명지킴이 사업 ▲ 자살 가족을 돌보는 생명돌보미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응모 대상은 자살 예방 관련 연구자와 민간 비영리단체이며 분야 간 중복 지원해도 된다.

재단은 상반기 중 ▲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 사회적 의인(義人) 발굴 ▲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 미숙아 치료 등 4가지 사업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자살 예방 활동을 첫 사업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2007년 12월 27일 재단 설립허가 이후 2008년 2월 29일 창립 기념행사와 현판식은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mbn은 재단이 창립 기념 행사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방송했으며, 국민일보도 재단의 출범소식을 전하면서 재단의 초대 이사장인 이시형 박사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같은 날 매일경제신문·한국금융신문·머니투데이·이데일리·이투데이 등 경제신문들도 재단의 출범을 알렸다. 특히 머니투데이와 이데일리는 재단의 주요사업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지원 등 재단 사업추진에 책임감을 느낀다. 철저한 현황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이시형 재단 이사장의 기념사와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생명보험업계가 사회공헌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기업의 성공적인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는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양승규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인용, 게재했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4월 1일자 기사에서 160억 원 추가 지원 기사를 수록, 출연받은 전액을 미숙아 지원·자살 예방 지원·저소득 치매노인 지원·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고 보도했다.



④ 창립 기념사진
⑤ 3차 이사회 (2008. 5. 23)
⑥ 4차 이사회 (2008. 12. 2)

2007년 4월 '생명보험 산업의 건전한 문화 정착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기'로 공표하였고, 이후 전문적·체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재단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 출연하는 공익재단의 설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률에 정한 순수한 자선 관련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공공체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07년 5월부터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10월 본격적인 공동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20일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민국에서 생명보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을 당사자로 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에서 당사자인 각 보험회사들은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생명보험협회 및 생명보험사들은 2007년 재단설립발기인총회를 거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설립을 확정하고,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12월 27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취득해 공식 출범하였다. 재단은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진념 서정법무법인 고문과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 김석산 한국복지재단 회장을 이사로, 김대영 대산문화재단 이사를 상임이사로, 강성원 삼정회계법인 부회장과 양승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감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생명보험업계는 사회공헌사업을 총괄하는 '사회공헌위원회'도 구성하였다. 9인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운영주체(재단 및 기금)별 재원의 배분, 기금을 활용한 보험문화 확산 수행 등 생명보험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양승규 세종대학교 총장,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신수식 고려대 명예교수(전 한국보험신문 회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천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회장과 생명보험업계 대표 3인으로 구성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8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 박병명 보험감독국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인 세종대 양승규 총장과 생명보험협회 남궁훈 회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생명 신은철 대표이사, 삼성생명 이수창 대표이사, 흥국생명 김상욱 부사장, 교보생명 신창재 대표이사, 동양생명 박종진 대표이사, 신한생명 서진원 대표이사, 금호생명 최병길 대표이사, 동부생명 조재홍 대표이사,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충무로2가 사무실에서 창립 기념행사 및 현판식을 가졌다. 이후 2008년 5월 자살예방 지원사업의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재단 설립 취지문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일생에 걸친 '생애 보장'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따라서 정관에 정한 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으로 순수한 자선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대상자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하며, 우리 사회 복지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의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자살예방활동 등 생명을 존중하는 공익 서비스를 개인 및 단체에 무상으로, 평등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 이러한 공익활동을 통해서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한편,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선진국이 되는 데 기여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사업지원

재단의 사회공헌 주요사업은 매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이 차례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은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한국일보(6. 26)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공익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예정된 5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광고를 내고 지원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이데일리 등의 경제지에도 재단이 “희귀난치성 질환에 30억 원 지원”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내일신문·매일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머니투데이·한국금융신문 등은 10월 22일자에 지원금 30억 원 전달에 관한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자살예방 사업지원

자살예방 활동나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살예방 사업을 첫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인 '생명사상 연구지원'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캠페인 '생명사랑 인식 확산 사업', 자살예방 관련 교육활동인 '생명지킴이 사업', 자살 고위험군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관리활동인 '생명돌보이 사업' 등 네 분야로 나뉘어 올해 총 10억 원이 지원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활동 본격화
 11월 2008.05.26 14:23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생명보험사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첫 사업으로 자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8일 자살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 신청을 내달 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의미를 구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다.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www.lifef.com)나 전화(02-2261-2291~3)로 하면 된다.

자살예방 사업의 목적은 생명존중 사상(善善)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단은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는 생명사상 연구지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인식 확산사업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생명지킴이 사업 ▲자살 고(위)험군 및 가족을 돌보는 생명 돌보이 사업 등 4개 분야에 총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며 “최근 청소년, 노인 등 각계각층의 자살소식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에 국민적 정서를 바꿔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막고 자살예방사업을 첫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올 상반기 중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및 연구자원을 비롯 자소독 치매노인 지원, 저소득 미숙아 치료 및 재활 지원, 사회적 의인 발굴 등의 지원사업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200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수는 1만688명으로 10년전보다 8.9% 증가했으며, 주요 사망원인 5위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사업 지원"
 2008년 05월 26일 14:15

생명보험사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첫 사업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재단은 자살 예방을 위한 역학 조사와 생명 사랑 캠페인 사업, 자살 예방 활동, 자살 고위험군 돌보이 사업 등 4개 분야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 대상은 자살 예방 관련 연구자와 민간 비영리단체이며 분야 간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도 주목을 받았다. 재단이 5개 주요 사업 중 첫 사업으로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매일경제신문·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신문·이데일리·한국경제신문 등 주요경제지가 5월 28일과 29일자로 일제히 보도했다. 내일신문도 'OECD 자살률 1위 오명 씻자' 라는 타이틀로 재단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9월 11일 지원증서 전달식은 한국경제 TV·파이낸셜뉴스·한국보험신문·한국금융신문·머니투데이·이

투데이 등에서 13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 9억 5,00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단체와 달리 12월 12일에 지원금을 전달한 국방부 자살예방 교육비 지원도 매스컴의 한 면을 장식했다. 매일경제신문은 “군인 자살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에 2억 원을 지원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원금은 군내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의 지속적인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총 17차에 걸쳐 1,000여 명의 군내 전문교관을 양성하는 교육비로 쓰여진다”고 보도했으며, 이데일리는 이시형 이사장의 인사말을 인용 “자살은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실”이라며 “군내 자살은 주위의 관심과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치매질환·치매노인' 위, 30억 지원
 11월 2008.05.26 14:14:47

[서울파이낸스 박연규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1일 희귀난치성 질환 및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을 위해 총 8개 단체에 3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은 지난 7월 연구지원-인식확산-의료지원-복지지원 4개분야로 사업신청을 받아 연구 20개, 사업 17개에 대해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원인규명 및 치료법 개발 등 연구비 ▲치매노인 맞춤형 ▲특수치료센터 건립 및 운영비가 지원된다.

다불어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연구지원-인식확산-복지지원 3개 분야로 내년 연구 3개, 사업 4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이날 통해 ▲치매 원인규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치매에 관한 인식확산 ▲치매노인 및 가족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은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의 37개 단체와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의 44개 단체를 총 8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되고 싶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

고령화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mbn·매일경제신문·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이투데이·이데일리 등은 6월 30일자에 재단이 올 치매노인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내일신문·매일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 등은 10월 22일자에 지원금 전달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한편 국제신문은 12월 15일자 '치매노인 위탁보호·재활프로그램' 기사에서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직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치매어르신 주말보호 프로그램 '은빛쉼터-휴' 사업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출산해소·미숙아지원 사업' 증서 전달
 총 14개 사업에 5억 원 지원

2008년 11월 12일 (화) 14:14:47

[서울파이낸스 박연규 기자]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2일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지원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련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연구보건복지활동 전국부인회총본부 등 14개 단체의 단체장 및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저출산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은 지난 8월 ▲저출산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복지 ▲미숙아 예방 및 의료복지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사업신청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해소의 경우, 미숙아 예방에 6개 사업 지원결정을 했다. 여기에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시형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출산을 꺼리고, 자녀를 낳아도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선정된 여러 단체에서 각자의 곳곳에서 불린 사업을 진행해 우리사회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 사업 증서 전달식에 참여한 (앞줄 왼쪽부터) 한국경제신문실천연구회 정태성 교수, 한국경제신문실천연구회 서소진 교수, 부원장인회총복지회 윤도영 사무국장, 영모사회공헌재단 이시형 이사장, 한국여당다자연합회 나은숙 회장, 한국부인회총본부 김경민 본부장, 한국부인회총본부 남영희 사무국장, (뒷줄 왼쪽부터) 중앙공립대학교의 김경희 씨, 에버리딩에인종합복지관 최영희 씨, 동산대학교의 김경희 씨,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황혜진 팀장, 인천유아보건복지회 신순실 팀장, 연구보건복지활동 전국본부장, 대한사회복지회 송연경 씨, 한국여당다자연합회 박연규 씨

다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경제TV·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머니투데이·이투데이·한국보험신문은 7월 30~31일 일제히 사업 시작을 알렸다. 매일경제신문은 7월 30일 재단의 지원사업 기사를 내보냈으며, 파이낸셜뉴스는 사업지원 소식과 더불어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유계숙 교수의 멘트를 통해 “정부에서도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및 미숙아 문제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 언론, 시민 사회 등 사회 각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보험신문·서울파이낸스·이투데이는 12월 12일 지원 증서 전달을 보도했다.

Business Review

주요사업

재단의 사업은 '설립취지문 및 비전-우리의 사명'에 나왔듯이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애보장' 정신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한 '생애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재단 집중보도 및 이시형 재단 이사장 인터뷰

내일신문은 2008년 7월 24일자 '생명보험업계 공동 공익활동 나섰다'라는 기획기사와 이시형 재단 이사장 인터뷰를 내보냈다.

기획기사에서는 "기업이 자사의 경영목표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나 비영리 단체와 연계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생명보험업계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은 업계 전체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특정 회사가 아닌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공동모금이기 때문에 생색이 안 나고 지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대부분 보험가입조차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에도 사실상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도 기금을 조성해 국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도 12월 25일자에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본격 시행'을 보험업계 10대 뉴스로 선정해 보도했다. 기사에서 "지나해 생명보험업계가 공표한 20년간 1조 5,000억 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계획이 울 들어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12월 27일 출범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 예방 활동,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미숙아 및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연말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올해 초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취지가 남달라 재단 설립도 관심을 모았지만 누가 이사장을 맡을 지에도 관심이 높았다. 결과는 신경장신과 전문의 이시형(74) 박사로 결정지어졌다. '이시형 박사'라는 별칭이 어름이다 싶었다니 이유가 있다. '배방으로 삼시다' '자기대로 살아가라' 등 수많은 저서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그는,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강연과 거고 등으로 동행무 전하던 바로 그것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을 향해 "걱정없이 살라"고 외치던 그가 지금은 광명도 흥천군 서면의 산중턱에 '힐러런스 선마을'을 짓고 훈장으로 활동 중이다. 힐러런스 선마을은 일종의 자연치유체험장이다. 자연과 호흡하고 조용히 명상하면서 느끼게 사는 법과 책임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그는 선마을에 대해 "갈방에 걸려기 전에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습관 마음 습관 등을 바꾸는 등 일종의 예방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 박사가 그동안 보여왔던 도전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어찌 보면 속세를 떠나 도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더 가깝게 닮아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서울에 오고 나머지는 대부분 선마을에서 지낸다고 한다. 그런 그가 지난해 연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직은 거기에 수락했다. 이유를 묻자 대답은 간단했다. "재단에서 중요하게 맡치게 할 주요사업이 넓은 의미에서 선마을에서 하고 있는 예방활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사회적 취약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을 5대 사업으로 성행할 방향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자 신청을 받아 최종 심사 중에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시형 이사장은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과 기초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단이 출범하면서 밝힌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신경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너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 정확한 통계나 기초자료가 부족해 거의 면백에서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장부의 연구원 등의 도움을 받고 있던 하지만 아직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면서 "우리 사업이 정말 아무런 곳,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애보장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그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공동모금이기에 때문에 생색이 안 나고 지원 받게 될 사람들이 대부분 보험가입조차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업에도 사실상 도움이 안된다"면서 "그런데도 기금을 조성해 국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달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선마을 훈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건강 건강관련 메시지를 뚜렷하자 "건강장수의 70%는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급하고 무엇인가에 쫓기고 부정적인 면이 많은데 그러면 오래 살 수 없다"면서 "밝고 여유롭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성인의 62.6%가 발병전이거나 이미 발병이 진행 중이라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병이 난 뒤에서야 후회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기 전에 생활습관 운동습관 마음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철 기자 cjung@naeil.com Copyright ©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시형 재단 이사장 - 생명보험업계의 선봉자로서 '생애보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한 '생애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 - 생명보험업계의 선봉자로서 '생애보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한 '생애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 - 생명보험업계의 선봉자로서 '생애보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한 '생애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 - 생명보험업계의 선봉자로서 '생애보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한 '생애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시형 재단 이사장 - 생명보험업계의 선봉자로서 '생애보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쳐 '생명존중 생명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소외 계층에 대한 '생애보장'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내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연구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의 기초 및 임상, 예방 및 조기발견, 유전자 규명, 정책 및 건강증진 연구 등	
	인식확산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캠페인,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의료지원	-치료비, 재활치료비, 특수치료제 및 보장구 등	
	복지지원	-특수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사랑 연구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	
	생명사랑 인식확산	-자살에 대한 편견해소 및 생명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성 사업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제작 등 홍보 관련 사업	
	생명 지킴이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사업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관련 사업 -기타 자살예방의 장기적인 효과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생명 돌보미	-자살 고위험군 대상의 상담 및 교육, 자활 관련 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사업 -기타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인식확산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성 사업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및 교육 교재, 사례집 등 제작, 배포 사업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사업	
	복지지원	-치매가족 대상 교육, 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교육 사업 -치매노인 및 가족 대상 복지, 재활 프로그램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지원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 -치매의 진단 및 치료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재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저출산 해소	인식개선
미숙아 지원	교육복지	-저소득층 대상 산전·후 관리 및 보호 교육 -올바른 출산·육아 관련 상담, 교육	
	예방사업	-미숙아 예방을 위한 교재 개발, 보급 -미숙아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의료복지	-치료시술, 재활치료비 -가족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상찬사업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장기적·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시상하는 상찬사업	
	협약사업	-생명존중정신의 적극적 실천을 통하여 공익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연구 지원을 통해 창조적인 지식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원인규명과 치료법 개발 등에 대한 연구역량을 극대화하여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편견극복과 인식개선에 이바지하여 생명보험의 근간이 되는 '생명존중'의 의미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교육·자활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질환극복 및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은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연구지원 사업이다. 전문 연구·전문 연구기관·기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의 기전·진단과 치료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 유전자 규명연구, 희귀난치성 질환의 관리·지원 관련 정책과 건강증진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인식확산 지원사업이다. 의료기관·복지기관·기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성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제작 등 홍보 관련 사업 등이다. 셋째, 의료지원 사업이다. 의료기관·복지기관·기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재활 전문클리닉·재활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특수치료제 및 보장구 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넷째, 의료기관·복지기관·기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재활 전문클리닉 설치,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쉼터, 교육·의료·사회복지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그 가족 대상 교육과 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및 중증 희귀질환자 재가관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사업은 박현영 박사(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센터 심혈관질환팀)의 자문을 받아 세부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 2008년 6월 23일 한국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신문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 가톨릭대학교 성모종합병원·대한가정의학회 등 999개 관련단체에 사업요강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우편 및 E-mail을 통해 접수한 결과 총 51개 단

체 59건이 접수되었다(연구지원 30건, 인식확산 6건, 의료지원 13건, 복지지원 10건). 이에 재단 사무국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지원단체 및 서류에 대한 적격심의를 실시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단체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내려 심의에서 제외하였다.

재단은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8월 19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의를 진행하였다. 신청단체 및 신청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 지원대상 33건, 지원후보 6건, 지원제외 22건을 심의·분류하였다. 또한 지원대상 신청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서류심사 및 면담(18건), 인건비와 단가의 적정성과 기계·비품구입비의 조정 등 세부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하였다. 1차(전문가) 심의기준은 연구분야의 경우 △연구의 적절성(40):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및 필요성, 창의성, 추진과정의 체계성, 연구규모의 적절성, 선행조사 및 사전연구 △연구의 파급효과(40): 원인규명 및 치료법 개발의 대안제시, 학문적 및 산업적 파급효과, 연구활성화 기여도 △연구수행능력(20): 책임연구자(단체) 및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학문적 전문성 등이다. 사업분야의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및 합리성(40): 목적사업 취지의 부합성, 추진과정의 체계성, 대상자범위, 선정절차 및 기준의 합리성, 사업의 윤리성, 사업규모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40): 사회적 파급효과, 환자 및 가족의 현실적인 효과, 지역사회 모델화 △사업수행능력(20): 인적·물적 자원, 선행 사업실적, 성장가능성 등이 심의기준이다. 면담심의를 경우 사업수행의지 및 준비성, 사업대상자 및 내용, 예산(계수조정)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연구분야 (5인)

- 위원장 김중원 과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위원 이민구 교수 (연세대 의대 약리학교실)
- 김원호 박사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센터)
- 이종극 교수 (아산생명과학연구소 연구부)
- 이경훈 교수 (가천의대 길병원 산부인과)

» 사업분야 (5인)

- 위원장 박경수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위원 구수경 박사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팀)



① 지원증서 전달식 기념사진 (2008. 10. 21)

② 1차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
③ 2차 (이사회) 심의위원회 심의





4 지원증서 전달

이상구 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
 신영일 교수 (한국재활복지대학 의료보장구과)
 양희택 교수 (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과)

● 재단은 9월 23일 재단 회의실에서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대상 33건 및 지원후보 6건 등 총 3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 기준은 △ 재단의 기본 정책 및 방침과의 적합성 여부, 균형배분에 대한 심사(지역 간, 단체 간 균형안배) △각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심사 △재단 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심사 △지원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심사 △사업 수행에 대한 잠재 역량에 대한 심사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 9월말 지원단체(개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재단 홈페이지에도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21일 생명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원증서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사업구분 및 예산실적현황

구분	연구지원	인식확산	의료지원	복지지원 ¹⁾	합계
지원건수	20	4	8	4	36
대상인원 (명)	20	8,910	555	2,730	12,215
금액 (천원)	767,622	115,574	510,920	525,788	1,919,904
비중(%)	40	6	26.6	27.4	100

* 대상인원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임

1) 희귀난치성 질환 특수치료센터 설치·운영 부문

사업별 세부지원 현황

사업분류	단체명(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단위 천원)
연구지원 (20건)	강성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희귀난치성 신경근육계 질환자의 호흡부전 관리 실태 조사	25,922
	김성주 (가톨릭대학교 분자유전학연구소)	선천성 희귀탈모질환의 치료 전략	45,000
	김언경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X-연관 유전성 난청인 DFN3의 진단법 개발 및 난청 유발 기전의 연구	45,000
	김중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맞춤 치료를 위한 치료에 대한 반응 및 예후에 관여하는 유전자 규명	30,000
	김철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사람 내임파상 상피세포의 계대배양을 통한 메니에르병의 모델 확립과 증가된 싸이토키린이 내임파상의 수분흡수능과 청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60,000
	류현미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모체 혈장내의 태아DNA를 이용한 유전적 희귀 난치성 질환의 산전 진단 기초 연구	60,000
	송해룡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골연장술시 rhBMP-2 주입이 신생골 형성에 미치는 영향	50,000

연구지원 (20건)	윤영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쥐에서 통증 발생기전 규명 및 진통제 개발을 위한 분자생물학적 및 약리학적 연구: Endothelin과 cytokines의 역할	29,700	
	이시훈 (가천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비의존성 양측성 거대결절성 부신과증식증 환자의 분자발병원인의 규명	30,000	
	이영재 (가천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전성출혈성모세혈관확장증의 발병 기전에 관한 연구 및 한국인 가계에서의 원인유전자 검사	30,000	
	이용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천성 갑상샘기능저하증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 분석과 유전자 변이 선별 진단법 개발	30,000	
	이진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임상유전학과)	Cornelia de Lange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 탐색 및 질병 기전 연구	30,000	
	정선용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학유전학과)	후생유전적 분석에 의한 신경성유종종 제1형의 종양발생 및 악성화 기전 규명	30,000	
	정성철 (이화여자대학교)	파브리병(Fabry disease)에서의 혈관 및 신장 손상에 대한 분자적 기전 연구	42,000	
	진동규 (삼성서울병원)	프라더 윌리 증후군 소아의 혈중 아디포넥틴과 아디포넥틴 수용체 발현에 관한 연구	30,000	
	진욱 (가천의과대학교 암당뇨연구소)	Ewing Sarcoma의 종양 발생 및 전이에 있어 Trk 유전자의 역할 규명: 항암 치료법 개발에의 응용	30,000	
	최병욱 (이화여자대학교)	샤르코-마리-투스병에서 미토콘드리아와 연관된 MFN2, DNM2, GDAP1 유전자 분석 및 임상병리학적 특성 연구	30,000	
인식확산 (4건)	최영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신경과학교실)	근모세포, 지방유래세포 및 근병증 조직에서 CTRP1의 발현과 근육생성-분화 과정의 비교	50,000	
	최재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남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환자의 기도 점막에서 PGE2에 의한 점액분비기전	30,000	
	최태윤 (순천향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선천성 대사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 양성자의 추적 관리	60,000	
	고려대학교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병환아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25,900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선천성대사질환에 대한 인식확산 프로젝트 '희망등대' 홍보책자 발간	29,674	
	한국작은키모임(LPK)	왜소증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사업	30,00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인식확산 캠페인	30,000	
	의료지원 (8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90,00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실조증 및 무형성빈혈, 만성신부전 등 신경계 및 내과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50,000
		근디스트로피환우보호자회	근이영양증 환우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지원	50,00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치료비 지원 사업	45,000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근육병 환자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보조기구 지원 사업	50,000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생불량빈혈 환자 이식 지원사업	50,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희귀·난치 질환자 및 가족의 치료기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25,920	
한국희귀질환연맹		영세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50,000	
복지지원 (4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희귀난치성질환 센터 운영사업	253,200	
	가장장애인복지관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의 전인재활을 위한 의료·교육·복지 통합지원 프로그램 지원 - EWM(Education Welfare Medical Integration) 이우미 -	101,92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설치·운영	68,000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	강원지역 희귀난치성 유전성대사장애질환 치료센터 건립	102,660	
합계			1,919,904	

○ 자살예방 지원사업



●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생명존중 생명 사랑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포괄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자살예방 및 생명의 소중함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광범위한 자살예방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전파,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시행방안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여 자살예방활동이 단절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으로, 전문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생명사랑 연구지원 사업이다. 전문 연구자·전문 연구기관·기타 관련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이다. 둘째, 생명사랑 인식확산 사업이다. 민간 비영리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생명존중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성 사업,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제작 등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생명지킴이 지원사업이다. 민간 비영리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사업,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관련 사업, 기타 자살예방의 장기적인 효과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넷째, 생명돌보미 지원사업이다. 민간 비영리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대상의 상담 및 교육·자활 관련 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대상 교육·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기타 위기개입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오승근 교수(명지대학 청소년복지학과)의 자문을 받아 세부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 2008년 5월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5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사업소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다음날 중앙일보·경향신문·한겨레신문 등 3개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보건소·정신보건센터·병원 등 500여 관련단체에 사업요강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5주간 우편 및 E-mail로 접수한 결과 총 24개 단체, 35건이 접수되었다(생명사랑 연구지원 5건, 생명사랑 인식확산 10건, 생명지킴이 13건, 생명돌보미 5건, 기타 2건). 이에 재단 사무국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읍사랑 지역아동센터 외 10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였다.

재단은 엄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심의를 진행하였다. 신청단체 및 신청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 지원대상 15건, 지원후보 1건, 지원제외 17건에 대해 분류·심의하였다. 1차(전문가) 심의기준은 연구추진방법의 합리성, 연구의 적합성 및 파급효과, 연구수행능력 등이다. QPR자살예방연구소&국방부가 지원한 <군내 자살사고예방을 위한 교관화 교육>과 극단 버섯이 지원한 <생명존중 생명사랑 캠페인 "병실에 불을 켜라"> 사업은 지원적격요건(비영리 민간단체)을 충족하지 못해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정식 안건에 회부되지 못했지만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대상으로 검토하였다.

-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위원장 강성보 교수 (고려대 교육학과,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 위원 정무성 교수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대학원장)
 - 이상균 교수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지승희 교수 (한국청소년 상담원 상담부)
 - 고복자 박사 (정신의학,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서기관)

● 재단은 8월 25일 재단 회의실에서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대상 15건, 지원후보 1건 및 별도 심의 대상 2건 등 18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 기준은 △재단의 기본 정책 및 방침과의 적합성 여부, 균형배분에 대한 심사 △각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심사 △재단 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심사 △지원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심사 △사업 수행에 대한 잠재 역량에 대한 심사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 재단은 8월 말 지원단체(개인)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이어 9월 11일 재단 회의실에서 지원증서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한편 국방부에 대한 지원증서 전달은 12월 12일 진행되었다.



① 지원증서 전달식 기념사진 (2008. 9. 11)

②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
③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 심의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요양 시설 및 관련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어 향후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총 3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인식확산 지원사업이다. 치매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등 캠페인성 사업,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및 교육 교재·사례집 등 제작·배포 사업,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사업의 지원사업이다. 둘째, 복지지원 사업이다. 치매가족 대상 교육·상담 등 복지프로그램, 치매노인 케어를 위한 교육 사업, 치매노인 및 가족대상 복지·재활 프로그램,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이다. 셋째, 연구지원 사업이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 치매의 진단 및 치료관련 기초 및 임상연구,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재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사업이다.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사업은 이윤로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의 자문을 받아 세부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2008년 6월 30일 국민일보·머니투데이·한국경제신문에 사업공고를 내고, 한국치매가족협회 등 2,455개 기관 및 단체에 사업요강을 발송하였다.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5주간 우편 및 E-mail로 접수한 결과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의학과 등 78개 단체, 78건이 접수되었다(연구지원 5건, 인식확산 12건, 복지지원 61건). 이에 재단 사무국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류적격심의를 거쳐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개인시설인 복지지원 분야 5건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 심의를 진행하였다. 신청단체(개인) 및 신청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 결과 지원대상 40건, 지원후보 12, 지원제외 21건에 대하여 분류·심의를 마쳤다. 또한 지원대상 신청단체(개인)에 대해서도 서류심의 및 면담(1건), 인건비와 단가의 적정성과 기계·비품구입비의 조정 등의 세부적인 심의를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하였다. 1차(전문가) 심의기준은 연구분야의 경우 △연구의 적절성(40):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및 필



4 지원증서 전달

사업구분 및 예산실적현황

구분	연구지원	인식확산	복지지원			합계
			생명지킴이	생명돌보미	기타	
지원건수	1	3	8	2	1	15
대상인원 (명)	1	50,000	32,960	4,500	1,000	88,461
금액 (천원)	20,000	566,000	181,975	55,200	200,000	1,023,175
비중(%)	2	55.3	17.8	5.4	19.5	100

※ 대상인원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임

사업별 세부지원 현황

사업 분류	단체명(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연구지원 (1건)	하상훈	강원도 태백시에서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부검과 사후예방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00
	한국자살예방협회	온 국민과 함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정착을 위한 "생명사랑 대축제-Born again"	210,000
인식확산 (3건)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2008 생명사랑 밤길걷기-어둠에서 희망으로 내면을 향한 여정"	240,000
	광주남구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청소년 생명사랑 사업	116,000
	한국생명의전화	청소년의 생명존중의식 함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 Loving my Life"	30,000
생명지킴이 (8건)	한국자살예방협회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및 교재개발	30,000
	경남자살예방협회	2008 찾아가는 청소년자살예방교육	18,000
	송파/강동정신보건센터	생명지킴이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28,000
	광주동구정신보건센터	희망씨앗 나누기(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사업)	28,505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15,170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을 통한 저소득 독거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노인생명보듬 프로젝트"	25,000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자살예방홍보사업 "완소 너"	7,300
	한국생명의전화	자살위기자 및 자살자 유가족 지원사업	30,000
생명돌보미 (2건)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을 위한 생명돌보미	25,200
기타	국방부	군내 자살사고예방을 위한 교관화 교육	200,000
합계			1,023,175



① 지원증서 전달식 기념사진 (2008. 10. 21)

요성, 창의성, 추진과정의 체계성, 연구규모의 적절성, 선행조사 및 사전연구 △연구의 파급효과(40): 원인규명 및 치료법 개발의 대안 제시, 학문적 및 산업적 파급효과, 연구활성화 기여도 △연구수행능력(20): 책임연구자(단체) 및 참여연구진 수행능력, 학문적 전문성 등이었다. 사업분야의 경우 △사업의 적절성 및 합리성(40): 목적사업 취지의 부합성, 추진과정의 체계성, 대상자 범위, 선정절차 및 기준의 합리성, 사업의 윤리성, 사업규모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 (40): 사회적 파급효과, 환자 및 가족의 현실적인 효과, 지역사회 모

델화 △사업수행능력(20): 인적·물적 자원, 선행 사업실적, 성장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면담심의회 심의기준은 사업수행의지 및 준비성, 사업대상자 및 내용, 예산(계수조정) 등이다.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한형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위 원 **조경희 과장**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윤영철 교수 (중앙대병원 신경과)

구재관 교수 (안양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이금룡 교수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김찬우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재단은 9월 23일 재단 회의실에서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대상 40건, 지원후보 12건 등 총 52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기준은 △재단의 기본 정책 및 방침과의 적합성 여부, 균형배분에 대한 심사(지역 간, 단체 간 균형안배) △각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심사 △재단 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심사 △지원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심사 등이다.

● 재단은 9월 말 지원단체(개인)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21일 생명보험협회 강당에서 지원증서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② 지원증서 전달

사업구분 및 예산실적현황

구분	연구지원	인식확산	복지지원	합계
지원건수	3	9	32	44
대상인원 (명)	3	19,792	1,787	21,582
금액 (천원)	122,560	186,219	550,125	858,904
비중(%)	14.3	21.7	64	100

※ 대상인원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임.

사업별 세부지원 현황

사업분류	단체명(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단위 천원)
연구지원 (3건)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김형준)	Ursodeoxycholic acid (UDCA)의 항치매효과 규명	45,000
	신라대 의생명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한동욱)	구조적인 인생 회고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과 뇌파에 미치는 영향	47,560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김효신)	치매노인 가족수발자를 위한 지지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30,000
인식확산 (9건)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바로 알리기 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老) 건강한 노(老) -	29,100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지킴이' 사업	20,930
	광주시노인종합복지관	치매 인식개선요원 양성 및 치매전문 Easy Web 구축사업 "치매 건강신호등"	29,400
	대구카톨릭치매센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치매전문 자원봉사자교육'	3,010
	복음실버타운	치매어르신의 전문케어접근과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직원교육 -"step by step(한걸음씩 탄탄히)"	5,700
	생명전환화합사회복지관	치매경증 어르신들이 만드는 "깜빡이-깜빡이 연극 공연단" - 어르신을 위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29,720
	성심요양원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순회교육 - 치매애 잘 있거라~	13,709
	연꽃피는집노인요양원	치매노인케어서비스 확대를 위한 케어매뉴얼 제작 및 지역주민교육프로그램	24,650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치매의 효율적 관리 대책"	30,000
복지지원 (32건)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소진예방 프로그램 'LoFam (Love Family)'	14,555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치매노인 및 가족 지원사업	20,000

복지지원
(32건)

김제노인전문요양원	“우리는 환상의 커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손자녀 맺어주기」 멘토링 프로그램	10,580
꽃동네옥천노인요양원	황혼의 늙, 치매어르신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7,900
단원구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르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매 및 우울증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지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하는 작은 희망, 푸른 행복”	11,000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경증치매노인의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프로그램-아름다운 인생 (3년)	59,148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치매 및 뇌졸중 어르신의 자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도우미 프로젝트 - 2Win 실버 도우미 (Silver Helper To Happy and Health) -	11,000
동대문 치매주간보호센터	치매노인 가족 통합프로그램 “이해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우리가족”	14,510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가족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내 저소득 노인의 치매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인지기능 향상 및 생활 만족도 증진 프로그램 ‘고(go)스톱(stop)’	18,735
라파엘복지재단	지역 치매(중풍) 노인 지원사업	20,000
문수실버복지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 P/G - “여기는 울엄니, 울아부지 마음 발전소”	20,000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	여가활동(요리, 원예)을 통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강화프로그램	7,407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수급·저소득 어르신의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자조프로그램 “치매예방 젊은우리”	15,490
사직주간노인복지센터	치매어르신 주말보호프로그램 『은빛쉼터 - 休』	19,990
산남노인복지센터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휴식을 통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금자리’	10,897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입소 치매노인과 홀로배우자의 노년기 부부관계 강화를 통한 치매노인가족지원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반쪽 - 내인생의 천생연분”	17,354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치매 어르신의 사회 안전 지지망 형성을 위한 전문 치료도우미 파견센터 『Lemon-Aid』	20,000
실버벨노인복지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임파워먼트강화를 위한 “행복한 우리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	19,995
안성시 노인복지관	치매노인가정 해체예방을 위한 치매노인,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19,540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치매노인가족의 부양부담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주말지원 프로그램 ‘언제나 휴(休)요일’	19,961
월명성모의집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정도별 전문서비스를 통한 생활시설 치매어르신들의 사회기술 증진 프로그램	13,324
은혜의 집 병설 노인주간보호센터	복지사각지대 농촌 여성재가노인들의 인지적 자조능력 강화를 위한 “치매몬테소리프로그램” - 부제 : 노년이 아름다운 현도	10,690
이화여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치매 인식개선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기반형 복지지원프로그램 “치매 LOVE (Local community Of Vital Empowerment)”	20,000
정호노인주간보호센터	치매어르신들의 증상단계별 정서 -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기가치회복프로그램 『여든 지팡이의 화려한 외출』	19,900
중구노인복지관	치매로의 악화가능성이 있는 ‘인지기능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강화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치매노인 재활프로그램 “쟁하고 해들날”	7,500
청주노인복지센터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심신 안정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18,456
초정노인전문요양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치매예방과 재활	13,530
프란치스코의집	중증 치매노인들을 위한 건강재활프로그램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16,147
한마음 복지재단	“더불어 함께하는 한마음 세상”	17,300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할머니하고 나하고 -치매어르신과 아들이 함께 하는 특별한 여행	16,920
함께사는 강원세상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치매예방을 위한 독거어르신 찾아가는 동화책 대여 및 동화 구연 사업	20,000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	재가시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사회·환경적 치료프로그램(사회재활 프로그램)	18,296
합계		858,904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숙아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발생 및 영아사망률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생명존중의 의미를 나누려는 데 있다.

●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은 총 4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다. 혼인·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재·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및 유·사산 예방 관련 캠페인성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이다. 둘째, 저출산 교육복지 사업이다. 저소득층 및 중소·영세기업 대상 산전·후 관리 및 보호 교육사업,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올바른 성·결혼·출산·육아 관련 상담과 교육사업,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근로자 상담 및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셋째, 미숙아 예방사업이다. 미숙아 예방·양육법 교육교재 개발·보급 관련 사업, 예비부부(부모) 대상 건강한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 미숙아의 발달장애 예방을 위한 조기진단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넷째, 미숙아 의료복지 사업이다. 치료수술·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미숙아 가족 대상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이다.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은 유계숙 교수(경희대학교 생활과학부)의 자문을 받아 세부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 2008년 8월 1일 세계일보·서울경제신문·파이낸셜뉴스 등에 사업공모 광고를 게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주요병원·여성단체·복지관 등 1,500여 곳에 사업요강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우편 및 E-mail로 접수한 결과 총 15개 단체 17건이 접수되었다.(저출산 인식개선 6건, 저출산 교육복지 5건, 미숙아 예방사업 2건, 미숙아 의료복지 4건) 이에 재단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류적격심사를 진행하였다.



1 지원증서 전달식 기념사진 (2008. 11. 12)

재단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23일 지원단체에 대한 면담(7건)을 진행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신청단체 및 신청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 지원대상 12건, 지원후보 3건, 지원제외 2건에 대한 심의·분류하였다. 1차(전문가) 심의기준은 △사업의 적절성 및 합리성(45): 목적사업 취지의 부합성, 추진과정의 체계성, 대상자범위, 선정절차 및 기준의 합리성, 사업의 윤

리성, 사업규모의 적절성 △사업의 파급효과(40): 사회적 파급효과, 환자 및 가족의 현실적인 효과, 지역사회 모델화 △사업수행능력(15): 인적·물적 자원, 선행 사업실적, 성장가능성 등이다. 면담심의를 경우 사업수행의지 및 준비성, 사업대상자 및 내용, 예산(계수조정) 등을 평가하였다.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한상순 원장 (미혼모 보호기관 애란원)

오경자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조혜정 교수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

● 재단은 10월 29일 재단 회의실에서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원대상 12건과 지원후보 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기준은 △재단의 기본 정책 및 방침과의 적합성 여부, 균형배분에 대한 심사(지역 간, 단체 간 균형안배) △각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심사 △재단 사업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심사 △지원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심사 △사업 수행에 대한 잠재 역량에 대한 심사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 재단은 10월 말 지원단체(개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12일 재단 회의실에서 지원증서 전달식을 거행하였다.



2 지원증서 전달



3 1차(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의 4 2차(이사회)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구분 및 예산실적현황

구분	저출산 해소인식개선	저출산 해소교육복지	미숙아예방교육	미숙아의료복지	합계
지원건수	4	4	2	4	14
대상인원 (명)	36,200	7,230	5,040	1,214	49,684
금액 (천원)	119,800	104,400	77,600	167,896	469,696
비중(%)	25.5	22.2	16.5	35.8	100

※ 대상인원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임.

사업별 세부지원 현황

사업분류	단체명(개인명)	사업명	지원금액 (단위: 천원)
저출산 인식개선 (4건)	인구보건복지협회	미취학 아동의 출산친화 가치관 조성 콘텐츠 개발, 보급	29,800
	한국부인회총본부	저출산 문제와 인식개선	30,000
	한국여성디자인포럼	출산장려디자인 특별전	30,000
저출산 교육복지 (4건)	ProLife	"Choose hope!! hopeful society!!" 희망찬 미래, 생명사랑 문화정착을 위한 전국 투어 캠페인	30,000
	대한사회복지회	美 娥 姓 (미아성 : 미혼엄마의 아름다운 성을 위하여)	30,000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양성평등 가치관 확산 및 동대문구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대학생 전문 자원봉사 연극단 "네르투스(Nerthus)" 조직사업	30,000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 의식 전환을 위한 학생·부모·지역사회 연계 성교육 프로그램 "시작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성 이야기"	14,400
미숙아 예방 (2건)	ProLife	시설 청소년 대상 임신 예방과 미래 임파워먼트 교육 "Restarting!!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 (시설청소년 대상-전국 청소년쉼터)	30,000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예비부부(부모) 대상 건강한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	17,600
미숙아 의료복지 (4건)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미숙아의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사업 (2년)	60,000
	부평장애아통합복지관	다영역적 접근에 의한 미숙아 조기 재활 프로그램 "열 개의 손길이 키워가는 작은 꿈 하나"	35,540
	에바다장애아통합복지관	미숙아동의 운동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향상을 위한 의료복지사업 "작은 씨앗의 큰 꿈"	44,100
	울산광역시장애아통합복지관	발달 단계에 있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재활치료 지원프로그램 "더 오름"	49,963
	인천광역시중구장애아통합복지관	"감각의 식당에서 맛있게도 남남" 다감각체험공간에서의 감각자극을 통한 다 영역 발달 촉진 프로그램	38,293
합계			469,696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

●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은 투철한 사명감이나 생명존중정신을 발현하여 국가와 공동체 및 타인의 생명을 위해 헌신한 사회적 의인(義人)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생명존중사상을 전파하며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적 의인'이라 함은 고도의 생명존중정신을 발현하여 적극적·능동적 행위로서 국가·공동체 및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생명존중 생명사랑' 정신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의(公義)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은 크게 국가 및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의인을 기리기 위한 사업과 생명존중정신을 오래도록 실천하고 있는 의인을 기리기 위한 사업 2가지로 나뉜다.

● 이에 재단은 소방방재청과 효율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정신과 공의(公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8년 12월 26일 소방방재청과 2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재단과 소방방재청 간에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용

생활지원금 및 자녀장학금 지원부문 : 순직·공상소방관의 유족, 가족 중 경제자립이 어려운 노부모 및 학생자녀를 선발하여 지급한다.

조직

재단과 소방방재청은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공동운영위원회는 재단 및 소방방재청 각 3명 이하의 동수의 추천인사로 구성한다.
2. 공동운영위원회는 사업운영의 최고심의의결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세부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 나. 사업평가 등 주요 사항
 - 다. 그 밖에 부의된 사항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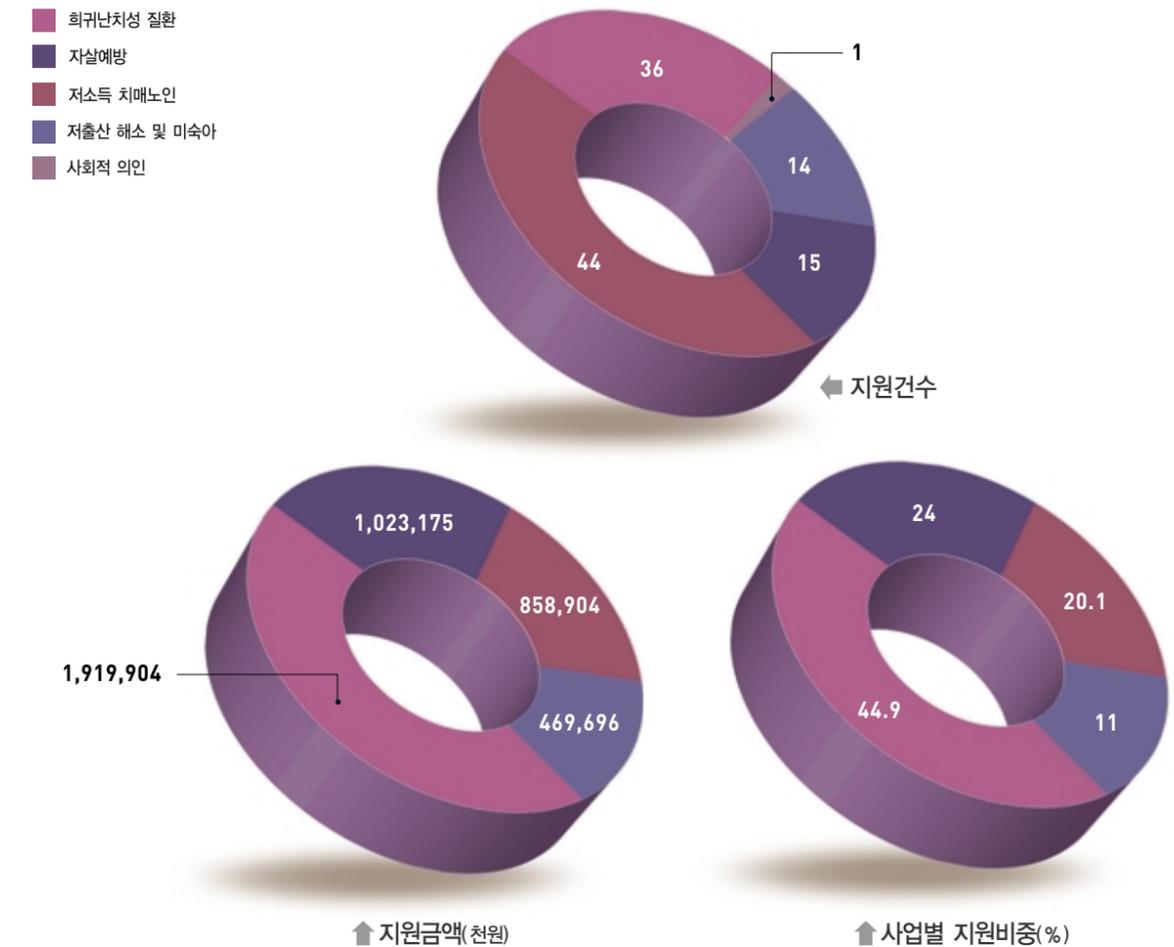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한다.

1. 소방방재청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 가. 소방관서를 통한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접수
 - 나. 민간부문의 사회적 의인 발굴과 관련한 증빙자료 확인 협조
 - 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투명한 업무처리절차 수립 및 재단요구 정보의 제공
 - 라. 재단에서 별도 제정·시행하는 '생명보험의인상' 후보자 추천
2. 재단은 본 협약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하며,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협조한다.

Statement of Activities with Statistical Charts 그림으로 본 2008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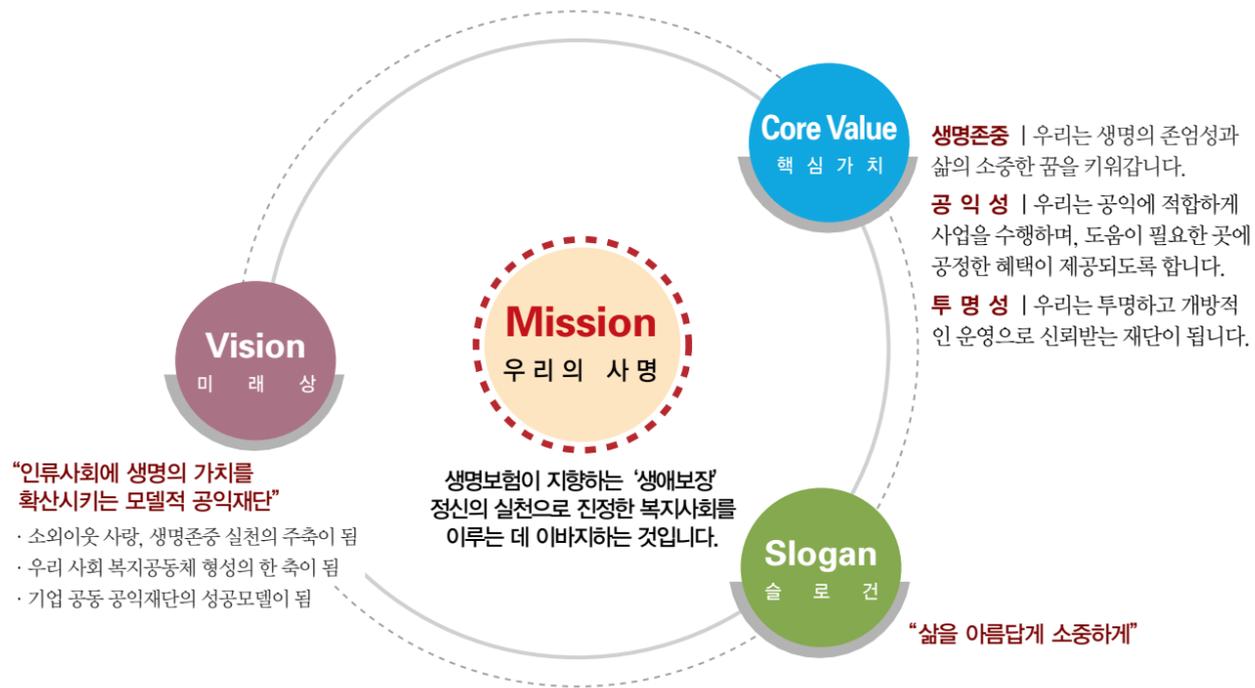
구분	회귀난치성 질환	자살예방	저소득 치매노인	저출산 해소 및 미숙아	사회적 의인	합계
지원건수	36	15	44	14	1	110
대상인원 (명)	12,215	88,461	21,582	49,684	-	171,942
지원금액 (천원)	1,919,904	1,023,175	858,904	469,696	-	4,271,679
사업별 지원비중 (%)	44.9	24	20.1	11	0	100

※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의 경우 소방방재청과 협약을 2008년 12월에 체결하였으며, 지원금 2억 원은 추후 전달 예정임.
※ 대상인원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산출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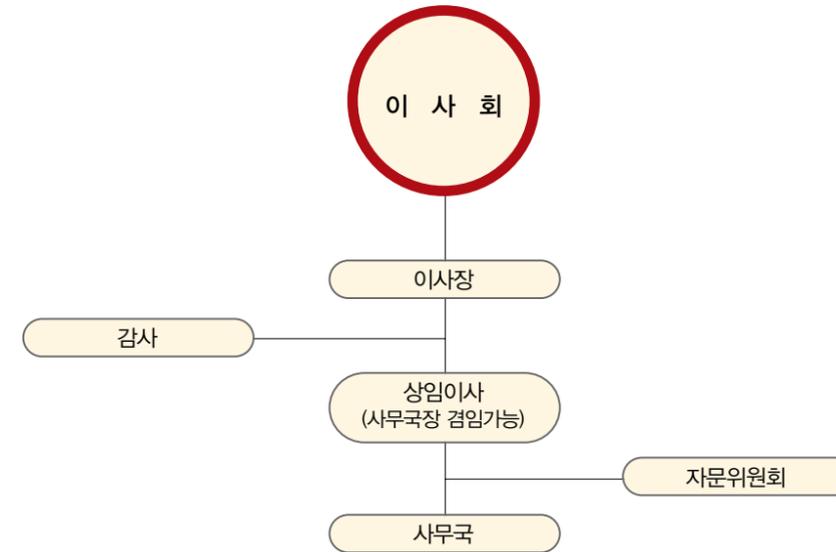
• Mission & Vision

우리의 사명과 비전



• Foundation Organization

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이시형 ● 한국자연의학연구원장

이사

- 진 념 ● 서정법무법인 고문
- 박진근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김석산 ● 어린이재단 회장

상임이사

김대영 ● 前 대산문화재단 상임이사 / 사무국장 겸무

감사

- 강성원 ●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 양승우 ●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대표이사

직원

사업팀

- 박옥만 ● 팀장
- 김효진 / 박성민 ● 사업파트
- 이혜영 ● 관리파트

Foundation CI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ife Insurance Philanthropy Foundation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FI (Foundation Identity)는 생명의 근원인 태아와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의 형태를 나눔과 봉사를 상징하는 따뜻한 손길이 받쳐주고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Design Concept

하트 모양에 사용된 오렌지색에서 붉은 색상의 변화는 생명사랑과 희망의 빛을 상징하며, 받쳐주는 손길의 갈색의 색상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를 상징하며, 글자에 사용된 녹색의 색상은 따뜻한 사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